

李獻慶 傳 문학 연구

– 무신란 이후 충절 기억의 재편과 남인 문인의 입전 의식

김보민 *

-
1. 서론
 2. 戊申亂 이후 남인의 위기와 영남 충절 기억의 재편
 - 1) 무신란 이후 남인의 위기와 정조대 복권 정책
 - 2) 남인 문인 네트워크와 지역 충절의 기록
 3. 이현경의 傳 문학과 입전 의식
 - 1) 『艮翁集』傳 작품군의 구성과 주제 의식
 - 2) 「李義士傳」의 구조와 입전 양상
 4. 결론
-

■ 국문요약

본고는 1728년 戊申亂 이후 영남 남인이 직면한 정치적·도덕적 위기와, 이에 대응하여 남인 문인 사회가 수행한 충절 기억의 재편 과정을 李獻慶 (1719~1791)의 傳 문학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무신란은 영남을 '反逆鄉'으로 낙인찍는 담론을 형성하였고, 이는 영남 남인의 정치적 소외뿐 아니라 지역의 도덕적 명성과 도학적 정통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인 문인들은 충절 인물에 대한 기록과 현장을 통해 지역의 도덕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집단 기억을 재구성하는 글쓰기를 전개하였다.

본고는 먼저 무신란 이후 영남 남인이 처한 정치적·도덕적 위기와 정조대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equuleus121@korea.ac.kr

복권 정책을 검토하고, 근기 남인과 영남 남인의 교류 속에서 형성된 충절 기록의 문인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이어 『艮翁集』에 수록된 傳 작품군을 개관하여, 이현경의 傳이 주로 영남 출신 충절 인물을 대상으로 삼고 ‘孝’와 ‘忠’을 중심으로 서사를 구성하는 일관된 입전 의식을 지닌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傳 가운데 「李義士傳」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이현경이 사마천의 「伯夷列傳」을 전범으로 입전 구조를 조직하고 인물의 죽음을 재해석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또한 동일 인물을 다룬 동시대 기록과의 비교를 통해 「李義士傳」이 기존 충절 서사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작가의 의론을 삽입한 다층적 구조 속에서 재구성된 텍스트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본고는 이현경의 傳 문학이 무신란 이후 남인 문인 사회가 충절 서사를 매개로 지역의 도덕적 정통성과 정치적 명분을 재정립해 나간 집단적 기억 실천의 한 양상임을 제시하였다.

주제어：李獻慶，傳文學，嶺南 南人，戊申亂，忠節

1. 서론

조선 후기의 연이은 전란과 정치적 변동은 지역 사회와 문인 집단의 정체성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1728년 戊申亂은 영남 지역을 ‘反逆鄉’으로 규정하는 인식을 형성하였고, 이러한 분위기는 남인의 정치적 입지뿐만 아니라 영남 지역의 도덕적 명성과 학통의 정통성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무신란 이후 영남 남인은 중앙 정계에서 장기간 소외되었으며, 지역 내부에서도 스스로의 도덕적 기반을 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¹⁾

이러한 시대적 맥락 속에서 주목되는 인물이 李獻慶(1719~1791)이

1) 박용국(2021).

다. 그는 정조대 근기 남인의 주요 문인이자 남인 정치 세력의 핵심으로 활동하면서도, 영남 남인과 긴밀한 인적 연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위치는 그의 傳 문학에 무신란 이후 남인이 처한 정치적·도덕적 상황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艮翁集』에 수록된 다섯 편의 전은 대부분 영남 출신의 충절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孝’와 ‘忠’을 중심으로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관된 입전 의식을 보여준다.

이현경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주로 그의 생애와 문학적 지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향배(2002)는 이현경의 고문론을 조명하여, 그가 육경을 학문의 근본이자 귀결점으로 삼고 제자백가의 서적을 매개로 육경에 접근하려는 독자적인 학문 방법을 제시하였음을 밝혔다.²⁾ 김진홍(2007)은 이현경의 가계와 생애를 고찰한 뒤, 그를 18세기 남인 시단의 독보적인 인물이자 독자적인 시세계를 개척한 시인으로 재평가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연구는 형식적 측면에서 의고시·악부가행체와 함께 영사시를, 내용적 측면에서는 유희적 시와 고뇌·울분을 토로한 시를 차례로 분석하였다.³⁾ 여운필(2013)은 이현경의 생애 전개에 따라 시세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하며, 특히 『대동시선』에 수록된 시 편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⁴⁾ 한편 조지형(2017)은 「天學問答」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18세기 서학 비판 담론 속에서 이현경의 사상적 입장을 추적하였다. 이 연구는 이현경이 18세기 후반 남인 계열 학자들 가운데서 서학 비판을 전개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였으며, 반서학적 입장을 이론적으로 견인한 인물임을 밝혔다.⁵⁾ 이어 조성산(2021)은 이현경의 理勢論과 心性論을 분석하여, 그가 모든 현상에 내

2) 이향배(2002).

3) 김진홍(2007).

4) 여운필(2013).

5) 조지형(2017).

재한 理를 적극적으로 인지해야 한다는 사유를 바탕으로 理와 勢, 정상적인 것(正常)과 기이한 것(奇變)을 연속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이현경의 학문 속에 李滉의 영향과 더불어 북인 학풍이 잠재되어 있었음을 논증하였다.⁶⁾ 송근후(2022)는 이현경의 문학관과 산문 세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그의 생애와 학문 연원을 토대로 허목 계열 근기 남인의 전통 속에서 이현경의 문학관을 위치 지었다. 특히 산문 세계를 公利 추구와 出仕 지향, 가족과 친우의 죽음 형상화, 碑誌傳狀을 통해서 본 인물의 서술 방식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⁷⁾ 이 과정에서 이현경 傳의 입전 의식과 서술 방식에 대한 분석이 일부 이루어진 바 있다.⁸⁾

다만 이러한 연구들은 개별 장르나 사상적 측면에 대한 고찰에 집중되어 있어, 이현경의 문학을 남인 문인 사회의 인식과 결부시킨 연구나 개별 작품 단위에서 검토한 분석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먼저 무신란 이후 영남 남인의 정치적·도덕적 위기와 정조대 복권 정책을 살펴보고, 남인 문인들의 충절 기록 활동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전개되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어 『간옹집』에 수록된 네 편의 傳을 개관하여 이현경 전 문학이 무신란 이후 남인의 도덕적 정통성과 지역적 명분을 재구성하는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李義士傳」의 서사 구조와 인물 형상화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동일 인물을 다룬 여러 기록과의 비교 속에서 해당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은 이현경 전 문학의 특징을 규명하는 동시에, 18세기 남인 문학의 성격을 살펴보는 데에도

6) 조성산(2021).

7) 송근후(2022).

8) 송근후(2022), 104~119면.

일정한 의의를 지닐 것이다.

2. 戊申亂 이후 남인의 위기와 영남 충절 기억의 재편

1) 무신란 이후 남인의 위기와 정조대 복권 정책

18세기 영남 남인의 정치적 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보다 앞선 시기, 곧 숙종 이후 형성된 당파 구조와 지역 인식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남 지역은 오랜 기간 鄒魯之鄉으로서 높은 학문적 권위를 유지해 왔지만, 조정 내 영향력은 항상 안정적이지만은 않았다. 숙종 대의 甲戌換局(1694)과 丙申處分(1716)을 거치며 중앙 정국은 노론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인의 정치적 입지는 점차 위축되었다. 영남 남인 역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경종 대에는 소론 집권 아래 안동을 중심으로 남인들이 李玄逸 신원 운동을 전개하며 名義罪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⁹⁾

이러한 취약한 정치 기반은 영조 즉위 이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영조 초 조정의 권력 구조는 빠르게 노론 중심으로 고착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인의 정치적 발언권은 자연스럽게 축소되었다. 丁未換局(1727) 당시 소론이 일시적으로 부상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인 흐름은 남인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728년에 발생한 戊申亂은 남인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키는 사건이었다. 반란이 영남에서도 安義·居昌·陝川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났음에도, 영남 전체를 잠재적

9) 이현일 문인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李玄逸의 伸冤 운동과 追崇 사업에 대해서는 이재현(2014)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반역의 온상으로 보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¹⁰⁾ 특히 경상도 안의에서 반란을 일으킨 鄭希亮이 안동 남인과 학맥 및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영남 전체에 대한 의심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¹¹⁾

이인좌와 정희량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안동 지역 남인들은 그 모의를 일정 부분 인지하고 있었으나, 반란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의병을 일으켜 대응하였다. 그럼에도 의병 활동에 참여한 인사들까지 반란 주도층의 供招에 이름이 거론되었다는 이유로 推鞫을 받는 일이 발생하였다. 영조는 이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였으며, 의병을 일으킨 일부 인물들을 등용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李裁를 천거하여 기용하고자 한 조치는 영남 전체를 반역향으로 규정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현일의 신원 문제가 끝내 해결되지 못한 탓에 영남 남인의 조정 출사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¹²⁾

이처럼 정국의 노론 중심화가 지속되면서 남인의 중앙 정치 진출은 장기간 위축되었고, 무신란은 영남 남인에게 위기의식을 일으켰다. 반란이 진압된 이후 조정이 영남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회복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영남 남인의 중앙 진출은 제한되었다. 조정에서는 형식적으로 남인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실제로는 주요 관직에서 배제하거나 중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영남을 포섭하려는 조치가 일부 존재하였으나, 이는 남인의 실질적 정치 복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고 부분

10) 강복숙(1996)은 무신란의 규모가 전국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론의 공세가 유독 영남 지방에 집중된 것은, 단순히 무신란의 발단이 영남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율곡·우계 학맥을 계승하여 호서 지방을 제지 기반으로 삼던 서인과, 지역·학문적 계보가 달랐던 영남 사족이 인조반정 이후 줄곧 대립 관계를 형성해 왔다는 점에서 그 내면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11) 이재현(2021), 7면.

12) 이재현(2021), 9~11면.

적인 수준에 머무는 조치에 불과하였다.¹³⁾

일례로, 1729년 3월 10일 清南이었던 오광운이 상소를 올려 이재를 포함한 22명에 대한 調用을 청하였다. 그는 색목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남이 과거 李麟佐의 난, 즉 무신란에 연루된 이후 문과 급제자들이 문관에 임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 신하들은 일정 부분 공감대를 보였으나, 노론이었던 오원은 국모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비난받은 이현일의 아들을 등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대하였다. 영남이 반역향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이현일의 아들을 서두에 언급하며 등용을 주장한 것은 필연적으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¹⁴⁾

무신란 이후 영남 남인이 직면한 위기에서 중요한 지점은, 그 위기가 단지 정치적 배제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영남이 반역향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지역이 지니고 있던 도덕적 권위가 무너지는 위기였다. 이때부터 남인은 지역 사회의 기반을 다시 세우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정조대에 이르러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다. 정조는 즉위 이후 탕평 정책을 계승하면서 인재 등용의 공정성을 핵심 국정 과제로 삼았고, 노론 중심으로 편중된 인사 구조의 시정을 목표로 하였다. 그 결과 한동안 정계에서 소외되어 있던 소론·남인·소부 세력 등이 다시 정계로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남인의 정계 복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은 蔡濟恭(1720~1799)이었다. 그는 영조와 정조의 각별한 신임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으며, 그의 동료와 문

13) 다만, 김백철(2021)은 18세기 영남 '叛逆鄉' 담론의 실상과 허상을 분석하면서, 영남의 고위직 진출이 구조적으로 차단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14) 김보민(2025), 64~67면.

인들로 구성된 근기 남인과 정치적 이해가 일치하는 영남 남인은 그의 영도 아래 중앙 정계에서 뚜렷한 정치 세력으로 성장해 갔다.¹⁵⁾

특히 1788년(정조 12) 정조는 안동 유생이 봉입한 『嶺南戊申倡義錄』을 열람한 뒤, 영남을 '역향'으로 취급하는 인식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영남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할 것을 명하는 전교를 내렸다.¹⁶⁾ 이어 1798년에는 채제공에게 『嶺南人物考』의 편찬을 명하여, 영남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하기 위한 자료적 기반을 마련하게 하였다. 정조의 이러한 조치는 무신란 이후 약 60여 년간 지속된 낙인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자 한 국가 차원의 복권 정책이었으며, 영남 남인에게는 중앙 정치 복귀의 실질적 가능성을 열어 보인 전환점이 되었다.¹⁷⁾

2) 남인 문인 네트워크와 지역 충절의 기록

무신란 이후 영남 사회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무너진 지역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었다. 반란이 지역 내부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영남은 정치적 신뢰를 상실한 지역으로 규정되었고, 이러한 낙인은 영남 남인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이에 지역 내부에서는 스스로의 도덕적 정통성을 재정립하고 명예를 회복하려는 자구적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무신란 이후 영남 지역에 파견된 지방관의 역할은 일상적인 업무 외에도 동요된 민심을 수습하고 풍교를 바로잡는 데 집중되었다. 교학 기관의 재정비와 교육 체계의 정상화가 가장 먼저 추진되었고, 무신란 관련 상징물과 기록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다.¹⁸⁾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15) 김정자(2023), 260~268면.

16) 『承政院日記』 정조 12년 11월 11일.

17) 정조 대 영남 남인의 중앙 정계 진출과 그 좌절 과정에 대해서는 김성우(2012)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18) 英祖代 戊申亂 이후 慶尙監司의 收拾策에 대해서는 이근호(2010)에 자세히 정리되

지역 사회는 자신들이 지켜온 가치가 여전히 유효함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충절·의리·효행과 같은 윤리적 자산은 지역의 명성을 되찾는 데 매우 효과적인 자원이었다. 남인 문인들은 이러한 윤리적 자산을 재해석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그들의 글쓰기는 영남의 도덕적 기반을 복구하려는 하나의 문학적 실천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도는 단발적인 기록에 그치지 않았다. 남인 문인들은 선대 문인의 글을 인용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동일 인물에 대한 해석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갔다. 이러한 축적 과정을 거치며 충절 인물에 대한 기억은 영남 지역의 집단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지역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하였다. 나아가 충절에 대한 기록이 지역 내부의 정체성 회복과 남인의 정치적 정당성 유지에 동시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이 시기 충절 기록은 단순한 도덕 담론을 넘어 실질적인 정치적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현경의 위치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현경은 영조·정조대 근기 남인의 대표 문장가로, 채제공·丁範祖(1723~1801)·申光洙(1712~1775)·睦萬中(1727~?)과 함께 ‘五鳳山’으로 불릴 만큼 문단의 중심인물이었다. 특히 1788년 대사간에 임명된 사실은 그가 정조의 영남 인재 중용 기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¹⁹⁾

이현경은 근기 남인뿐만 아니라 영남 남인과도 폭넓게 교유하며 두 지역의 남인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는 상주의 저명한 청남계 학자 李承延·李秉延 형제와 긴밀히 교유하였는데, 이들은 고조·증조·조부 대에 걸쳐 許穆(1595~1682)의 학통을 계승한 인물들이었

어 있다.

19) 『승정원일기』 정조 12년 10월 20일.

으며, 근기 남인 학풍과도 깊은 정신적 연속성을 공유하고 있었다.²⁰⁾ 이승연은 이현경에게 보낸 편지에서 문장가로서 이현경의 책임에 대해 논한 바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말하길, 吾黨에 文章家가 있었지만 선배들이 零落하여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세상에서 李蔡(이현경과 채제공)만을 칭송합니다. 蔡伯規의 경우는 이미 館閣에 들어갔으므로 그 직분을 얻었다고 할 만합니다. 하지만 지위가 현달하고 일이 많아 지금 應接할 겨를도 없으니 어찌 藝苑에서 마음을 노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文藝苑에 공을 이룰 자로는 오직 李夢瑞 그대에게 달려 있을 뿐이니 봉서는 힘쓰십시오! 吾黨에서 시에 능한 자는 丁法正(정법조)과 申聖淵(신광수)과 저의 죽은 아우 李彝甫(이병연) 등 서너 사람인데 제 아우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 두 명의 벗 또한 이미 世路에 나아갔으니 다시 예전처럼 힘써 배우지 못합니다. 게다가 시의 쓰임[用]이 文의 절실함[切]만 못합니다. 가령 국가에서 처리할 咨文이 있으면 金泥와 玉牒의 심히 아름답고 위대한 공렬을 누가 크게 폐겠습니까? 충신·열사·효자·절부의 뛰어난 절의와 행실을 누가 높이 칭양하겠습니까? 보좌하는 어진 신하와 훌륭한 석학의 혁혁한 鴻功과 지극한 도가 깃든 嘉言을 누가 드러내 밝혀 새기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노니 참으로 탄식할 만합니다. 그러니 재주가 있고 학문을 닦은 이가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²¹⁾²²⁾

이승연은 당대 남인 문단에서 문장가가 부재한 현실을 깊이 우려하

20) 송근후(2002), 18면.

21) 李承延, 『鹽州世稿』 권6, 「與李校理夢瑞論文書」. “今人怕言吾黨有文章，而先輩零落，今也則亡矣。世稱李蔡，而如伯規者，已入館閣，可謂得其職，然位顯而事繁，方應接不暇，何能遊心於藝苑耶？責其來效者，惟在夢瑞。夢瑞勉之哉！吾黨之能詩者如丁法丁·申聖淵及吾亡弟彝甫輩數三人，而吾弟已矣，彼二友者亦已出世路，則不復力學如前矣。且詩之用，不如文之切，假使國家有咨焉，金泥玉牒宏休丕烈，誰能銅張之？忠臣烈士孝子節婦卓節懿行，誰能揄揚之？良臣哲輔宏儒碩土鴻功赫業至道嘉言，誰能闡幽而顯銘之？思之良可嘆也。有才有學者，可不勉哉？”

22) 본 번역은 송근후(2022)의 번역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며, 그 공백을 메울 존재로서 이현경에게 기대한 문학적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그는 남인 문단이 단절되고 위축된 상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채제공이 정무로 분주하여 문예 활동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며, 남인 문단의 문예적 중추를 담당할 인물은 사실상 이현경 한 사람뿐임을 강조한다.

또한 이승연은 충신·열사·효자·절부의 행적, 어진 신하와 석학의 공적을 드러내어 후세에 새겨야 하는 역할은 詩가 아니라 文만이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영남 지역 문인이었던 이승연과의 이러한 교유 관계는, 이현경이 영남의 도덕적 정체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해야 한다는 책임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²³⁾

이현경의 지역 인식은 이러한 학문적·인맥적 배경 아래 형성되었다. 그는 영남을 고대 신라의 별칭인 '鷄林'으로 자주 칭하며, 영남을 오랜 세대에 걸쳐 충의와 사절의 전통을 이어온 공간으로 보았다. 「密陽孫氏忠孝錄」에서는 영남이 조선에서도 동쪽에 위치한다는 점을 들어 지역성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밀양을 계림의 옛터라 표현하였다. 신라의 다른 명칭이었던 이 표현은 밀양뿐 아니라 영남 출신 인물을 언급할 때도 자주 등장한다. 「李義士傳」에서 경주 출신 이팽수를 "계림의 의사"라고 부른 대목, 「退澗申公倡義錄序」에서 忠義를 들어 신라의 사절 전통이 영남에 계승되었음을 강조한 대목, 그리고 가행체 고시 「悲淸海」에서 장보고를 의롭고 충성스러운 인물로 재탄생시킨 사례 등 영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간옹집』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드러난다.²⁴⁾ 나아가 그는 1749

23) 李承延은 18세기 영남 사인의 영남 인식을 분석한 장편 산문인 「嶺對」를 남겼는데, 이 글은 山川·物產·人物·風俗·文章·道學·古今의 일곱 항목으로 나누어 영남 지역이 지난 문화적 전통과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승연은 예법과 도의를 송상하는 풍속을 비롯하여, 영남 사인이 공유한 지역 인식의 주요 양상을 제시하였다. 김주부(2012) 참조.

24) 송근후(2002), 112~113면.

년 金泉 察訪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漆谷의 架興寺와 架山城을 직접 방문하여, 임진·병자 양란 당시 충정을 다한 선조들의 자취를 확인한 바 있다.²⁵⁾

이처럼 이현경의 문학 활동 가운데 傳의 창작은 남인이 처한 정치적 현실 속에서 하나의 전략적 선택으로 이루어진 글쓰기였다. 근기 남인은 정조대의 정치 구도 속에서 일정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론, 특히 영남 유림의 지지가 필요했다. 한편 영남 남인은 중앙 정치로의 복귀를 위해 근기 남인의 후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호 의존 관계 속에서 남인 문인들이 영남의 충절 인물에 주목한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해 이현경 전 문학의 서사적 구성과 입전 의식을 밝히고자 한다.

3. 이현경의 傳 문학과 입전 의식

1) 『艮翁集』 傳 작품군의 구성과 주제 의식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신란 이후 영남 남인은 ‘叛逆鄉’ 담론 속에서 정치적·도덕적 위기에 직면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남인 문인들은 충절 인물을 매개로 지역의 도덕적 정통성과 집단 기억을 재구성하는 글쓰기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현경은 근기 남인과 영남 남인을 잇는 핵심 인물로서, 傳 창작을 통해 영남의 충의 전통을 재구성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²⁶⁾

25) 송근후(2002), 11~12면.

26) 채제공 또한 남인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모두 14편에 이르는 傳을 남겼다. 그의 전

따라서 본 장에서는 본고의 주요 분석 대상인 「李義士傳」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艮翁集』에 함께 수록된 네 편의 傳을 개관하여 이 현경 전 문학 전체의 구성 원리와 주제 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각 작품의 서사 구조와 인물 형상화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남인 문인이 수행한 충절 기록의 구체적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현경의 傳의 입전 인물들을 살펴보기 위해 『간옹집』에 수록된 다섯 편의 전을 제목, 입전 대상, 출신지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 목	입전 대상	출신지
「孝烈傳」	李尙揆(1618~1636)	서울
「竹林節士傳」	權山海(1403~1456)	경북 예천
「鄭烈士傳」	鄭湛(?~1592)	경북 영천
「李義士傳」	李彭壽(1559~1596)	경북 경주
「愼義士傳」	愼溟鷗(1676~1728)	경남 거창

(표 1) 『간옹집』 수록 傳 작품과 입전 대상

이현경의 傳 중에서도 첫머리에 배치된 「孝烈傳」은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에서 일가족 전체가 순절한 李尙揆(1618~1636)와 그 일가의 행적을 중심으로, 재상가 후손이 구현한 충효의 삶을 기록한 작품이다. 이 상규는 국가의 위기를 예견하고 충절을 다짐하였으며, 실제로 강화도 함락 당시 항복을 거부하고 전사하였다. 특히 그의 모친 權氏, 아내 具氏, 두 누이가 절의를 지키며 함께 순절한 사실은 일가 전체가 유교적 윤리

이 지역과 신분을 넘어 다양한 인물군을 폭넓게 포괄하는 데 비해, 이현경의 전은 주로 영남 출신의 충절 인물을 대상으로 하여 영남의 도덕적 명분과 긴밀히 결부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특징을 지닌다. 채제공의 전 문학에 대해서는 최준하(1993) 참조.

를 몸소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었다.

이상규의 5대손 李克誠은 관련 기록을 모아『五節殉難錄』으로 편집하고, 士友들에게 서문과跋문을 요청하였다. 安鼎福(1712~1791)이跋문을, 이현경·정범조·목만중·任天常(1754~1822)이 서문을 남겼다. 비록『오절순난록』은 현전하지 않지만, 이러한 편찬과 請文의 과정은 절의 인물에 대한 기억이 남인 문인 네트워크를 매개로 공론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상규가 영남 지역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전 인물에 포함된 것은, 이처럼 남인 문인 사회 내부에서 공유된 기억이 기준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간옹집』이自篇稿를 바탕으로 증보 및 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²⁷⁾ 작품이 배치된 순서에는 이현경의 의도가 반영되었을 가능성 이 크다. 「효열전」을 제외한 4편의 작품이 모두 시대순으로 배열되어 있음에도 연대상 네 번째에 해당하는「효열전」을 첫머리에 배치한 것은 입전 대상인 이상규뿐 아니라 일가 전체의 절의에 주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李烈士傳」과 같은 제목이 아닌「효열전」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한 개인의 절의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충절과 희생을 부각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나아가 다섯 편의傳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구성적 전략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현경의 전 작품은 모두‘孝’와‘忠’의 덕목을 중심에 놓고 인물을 형상화하는 서술적 특징을 지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²⁸⁾「효열전」은 이현경 전 전체의 서두를 장식하며 그의 입전 의식과 주제 의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竹林節士傳」은 성삼문, 박팽년과 함께 단종 복위 운동에 가담하다가

27) 송근후(2002), 104면.

28) 송근후(2002), 105면.

순절한 權山海(1403~1456)를 대상으로 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서두에서 伯夷와 叔齊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있는 만큼, 「伯夷列傳」의 주제 의식을 권산해의 삶에 투영하여 서술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현경은 권산해와 같이 지위가 낮은 신하가 절의를 실천한 일이 중국 고대 성현의 사례보다 더 드문 일이라 평가하며, “우리 동방의 풍속과 교화가 殷·晉을 능가하였다.”라는 자긍심을 드러내며 글을 시작한다. 권산해는 어린 시절 종조부 文景公 權軫에게서 「백이열전」을 배웠는데, 이때 세 번 반복해서 읽고서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어찌 만고의 인륜과 법도가 유지되었겠는가?”라고 크게 탄식하였다고 한다.²⁹⁾ 이는 권산해가 「백이 열전」에 담긴 절의의 정신을 내면화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현경 역시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그의 죽음을 백이의 절개를 계승한 사례로 이해하였다.

「백이전」을 세 번 반복해서 읽고서 이미 백이의 마음을 품었으며 마침내 백이의 절개를 이루었으니, 어찌 일시적인 감개로 충동적으로 목숨을 던진 자들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공은 龍宮의 大竹里에서 태어났고 스스로 ‘竹林’이라 號를 지었으니, 아마도 또한 孤竹의 풍모를 흡모하였던 것이리라.³⁰⁾

위 구절은 권산해의 삶과 죽음을 백이의 절개라는 윤리적 전통 속에 위치시키고자 한 이현경의 의도를 보여준다. 특히 ‘백이의 마음[伯夷之心]’과 ‘백이의 절개[伯夷之節]’를 제시하고 ‘죽림’이라는 호와 ‘고죽’의 연관성을 언급함으로써, 권산해의 일생 자체가 백이의 삶과 정신을 따르

29) 이현경, 『간옹집』 권21, 「竹林節士傳」, “幼從從祖文景公軫受伯夷傳, 三復太息曰：微斯人，何以扶萬古綱常？”

30) 이현경, 같은 글, “其三復伯夷傳也，已有伯夷之心，卒成伯夷之節，此豈一時感慨倉卒捐生者所可比耶？公生於龍宮之大竹里，以竹林自號，豈亦慕孤竹之風歟？”

고자 한 과정이었음을 드러내었다. 이현경은 인물의 이름과 지리적 배경을 상징적인 의미와 결합하여 그 의미를 재구성하였다. 제목을 「權節士傳」이 아닌 「竹林節士傳」으로 지은 것은, ‘죽림’이라는 호를 통해 권산해의 행적을 상징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세상에 이와 같은 인물이 있었는데도 글을 쓰는 선비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또한 천하 후세의 신하들을 어떻게 권면하겠는가. 나는 「백이전」 끝부분에서 거듭 감동한 바가 있으니, 비록 靑雲의 선비는 아 니나 충절의 자취가 사라져 일컬어지지 않음을 차마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權竹林傳」을 지었다.³¹⁾

이현경의 이러한 입전 의식은 사마천이 「백이열전」 말미에서 드러낸 태도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는 「백이열전」의 마지막 문장인 “청운의 선비에 붙지 않고서야 어찌 후세에 명성을 남길 수 있겠는가?”³²⁾를 언급 함으로써, 자신 또한 그 전통을 계승하고자 했음을 드러냈다.

나아가 이현경의 「죽림절사전」이 권산해의 충절을 재구성한 방식은 당대 문인들이 공유한 기억의 재편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권산해를 기린 기록은 시기와 장르를 달리하며 반복적으로 작성되었는데, 郭嶧(1568~1633), 李光靖(1714~1789), 洪良浩(1724~1802), 成海應(1760~1839), 李漢膺(1778~1864) 등이 각각 墓誌·墓碣·旌閭記·神道碑 등을 남겼다.

특히 이광정은 이재의 외손이자 李象靖(1711~1781)의 동생으로, 그 학맥을 계승한 영남 남인 문사였다. 홍양호와 성해옹 또한 18세기

31) 이현경, 같은 글. “世有如此之人，而能言之士不爲之一言，則亦何以勸天下後世爲人臣者乎？余於伯夷傳末，重有所感歎，雖非青雲之士，不忍使忠義之蹟湮滅而無稱，遂爲權竹林傳。”

32) 司馬遷, 『史記』, 「伯夷列傳」. “非附青雲之士，惡能施於後世哉？”

문단에서 당대 문인들과 폭넓게 교유하며 학문적·문학적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들로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권산해의 충절을 기록하는 작업에 관여하였다. 이처럼 권산해에 관한 여러 기록이 18세기 후반에 집중적으로 생산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충절이 당시 남인 문인 네트워크 내부에서 주목되며 재구성되었음을 보여준다.

『鄭烈士傳』은 임진왜란 당시 熊峙 전투에서 끝까지 적과 싸우다 전사한 鄭湛(?~1592)의 충절과 희생을 기리는 작품이다. 정담은 무과에 급제한 인물로, 임진왜란 발발 당시 전라도 금구(金溝, 현 김제)의 방어를 맡고 있었다. 그는 조정이 혼란에 빠지고 방어선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끝까지 진지를 사수하며 결사 항전의 의지를 다졌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던 그는, 화살이 다 떨어진 뒤에도 맨몸으로 적과 맞서 싸우다 장렬히 전사하였다. 그의 충성과 결기는 병사들의 결의를 북돋아 함께 죽음을 맹세하게 하였고, 이 전투에서 왜군의 정예군이 괴멸되면서 호남 일대가 지켜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이현경은 이 작품의 서두에 의론 부분을 삽입하였다. 본격적인 서술에 앞서, 임진왜란 당시 수군에서는 충무공 李舜臣(1545~1598)의 한산도 전투가 가장 뛰어났고, 육군에서는 도원수 權栗(1537~1599)의 행주산성 전투가 가장 으뜸이었다고 평한다. 그러나 이어 李恒福(1556~1618)이 남긴 기록을 인용하여 권율의 말을 전하면서, 전공으로 따지자면 행주산성 전투보다 웅치 전투가 더 크다고 언급한다.

전공으로 말하자면 웅치가 으뜸이고, 행주산성은 그 다음이다. 나는 행주산성 전투로 이름이 드러났지만 웅치에서 싸운 장수는 전사하였으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으니, 나는 매우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³³⁾

33) 이현경, 『간옹집』 권21, 「鄭烈士傳」, “戰功當以熊峙爲第一, 幸州次之。我以幸州顯, 熊峙之將, 死而名不顯, 我甚愧我甚愧云。”

이에 덧붙여 이현경은 外史氏의 말을 빌려, “장수가 공을 세워 당대에 이름을 드러내고 후세에까지 전해지는 데는 참으로 운과 불운이 있다.”³⁴⁾라고 서술하였는데, 이는 권율의 발언과도 상통한다. 역사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한편, 앞서 「죽림절사전」에서 드러난 입전 의식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대목이다.

글의 말미에서 이현경은 정담이 권율 휘하의 일개 군수에 불과하였음에도 도원수의 자리에 있던 권율이 기꺼이 공을 아랫사람에게 돌렸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권율을 어진 장수라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정담의 충성과 절의는 누구라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며, 서두에서 제시한 권율의 말과 본론에서 전개된 정담의 행적을 아울러 평하며 글을 마무리하였다.

정담에 대한 기록은 여러 충위에서 확인된다. 그를 기리는 기록만 해도 총 일곱 편이 남아 있으며, 이는 정담의 충절이 반복적으로 호출되었음을 보여준다. 그의 만사를 지은 崔覘(1563~1640)은 鄭述(1543~1620)의 문인으로, 선산 남인의 학맥을 잇는 인물이었다. 李徽逸(1619~1672)은 정담의 遺事を 남긴 인물로, 영남 남인의 정신적 지주였던 이현일의 형이다. 이현일 역시 行狀을 통해 정담의 생애를 정리하였는데, 동일한 가문의 두 형제가 함께 정담의 행적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정담의 충절이 남인 사회 내부에서 일찍부터 중요한 도덕적 표상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성해옹의 「錦山殉節諸臣傳」에도 정담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의 묘지명을 지은 黃汝一(1556~1622) 역시 퇴계 학맥의 문인이다. 이러한 문헌들은 여러 세대의 문인들이 각기 다른 위치에서 축적해 온 충절 기억의 연속선상에 정담이라는 인물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4) 이현경, 같은 글. “士之立功名顯當時垂後世者，固有幸不幸。”

「愼義士傳」은 1728년 무신란 당시 거창에서 의병을 일으켜 도적에 맞서 싸우고 끝내 순절한 愼溟翊(1676~1728)의 충절을 기리는 작품이다. 신명익은 정희량 등이 安陰을 점거하고 거창으로 진입하자, 관민이 도망친 가운데 홀로 나서서 의병을 모집하고 각지에 격문을 보내 군량과 병력을 요청하였다. 그의 격문으로 민심이 진정되고 의병이 모이기 시작하자 도적은 위협을 느껴 다시 거창으로 쳐들어왔고, 그는 도망하라는 아들의 권유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그리고는 “내 죽을 자리를 얻었으니 어찌 풀숲 속에서 살기를 구할 수 있겠는가.”³⁵⁾라며 끝까지 항거하다가 참혹하게 구타당한 끝에 숨을 거두었다. 조정은 그를 사헌부 장령에 추증하고 정려를 내려 예우하였으며, 지역 사류들은 사당을 세워 제사를 올렸다. 이 작품은 서술 방식이나 구성 면에서는 비교적 두드러지는 특징은 없지만, 마지막 구절은 주목할 만하다.

한 지방의 훌륭한 풍속을 어찌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를 수 있겠는가. 아, 아름답도다!³⁶⁾

입전 인물들 가운데 이상규를 제외한 모든 인물이 영남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현경이 영남 지역 節士들의 전을 기록하면서 「신의사 전」의 마지막 문장을 작품 전체의 맨 마지막에 배치한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2장에서 살펴보았듯, 영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그의 역사 인식과 가치관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개인의 절의가 축적되어 한 지역의 풍속을 형성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35) 이현경, 『간옹집』 권21, 「愼義士傳」. “義士厲聲曰：吾得死所矣，寧可草間求活耶？”

36) 이현경, 같은 글. “一邦善俗，寧可不知其所自歟？於乎懿哉！”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현경은 「신의사전」의 마지막 구절을 통해 신명익의 충절이 단지 개인의 미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의 훌륭한 풍속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신명익이 무신란에 활약한 인물이라는 점 역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신명익에 대한 기록은 徐命膺(1716~1787), 채제공, 성해옹에 의해 남아 있는데, 특히 성해옹은 『草榭談獻』에서 보이듯 억울하게 죽었거나 신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인물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가진 문인이었다. 『초사담헌』은 草野의 賢者를 대상으로 한 책으로, 崔致遠(857~?)에서 18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충·효·열을 실천한 139인의 자취를 취재한 저작이다.³⁷⁾ 여기에 「李述原 憲溟翊 田興道」라는 제목으로 신명익의 행적이 수록되어 있어, 그의 충절이 이술원 현창 사업과 더불어 주목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⁸⁾

이와 같이 『간옹집』에 수록된 네 편의 傳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축적된 충절의 기억을 하나의 도덕적 질서로 재구성하려는 문제의식 아래 전개되었다. 그의 전은 특정 인물의 행적을 서술하면서도 이를 지역의 풍속과 역사적 경험 속에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의미를 확장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서술은 무신란 이후 영남 남인이 처한 정치적·도덕적 위기 상황과 맞물려, 충절 기록을 통해 지역의 도덕적 정통성과 집단 기억을 재편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곧 이현경의 전 문학은 충절 서사를 매개로 남인 문인 네트워크 내부에서 공유된 기억을 공론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정체성과 정치적 명분을 동시에 재구성한 문학적 실천이

37) 손혜리(2015) 참조.

38) 1728년 무신란의 지역적 전개와 이술원 현창사업에 대해서는 박용국(2021)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라 할 수 있다.

2) 「李義士傳」의 구조와 입전 양상

앞서 살펴본 네 편의 傳은 모두 이현경이 충절 인물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위치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로서, 그의 전 문학 전반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그 가운데에서도 「李義士傳」은 입전 인물의 행적을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열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전면에 제기하며 忠·孝·名·義의 개념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본고에서 「李義士傳」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이유 역시, 이현경의 서사적 전략과 입전 의식이 이 작품에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李義士傳」이 어떠한 서사적 장치와 논리 구조를 통해 이러한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동시대 기록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현경의 입전 의식이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李彭壽(1559~1596)는 무과에 급제하였으나 관직에 오르지 못한 평민 신분으로, 임진왜란 당시 울산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병사를 이끌고 왜적과 싸우다 전사한 義士이다. 그를 다룬 작품은 「李義士傳」을 비롯하여 「李義士墓誌銘」, 「贈兵曹參判李公旌閭記」, 「忠臣李公墓碣銘」, 「李義士旌閭記」 등 모두 다섯 편이 전한다.

「李義士墓誌銘」은 이팽수에 관한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으로, 玄孫 李斗經의 의뢰로 權相一(1679~1759)이 지은 작품이다. 이 글은 선조의 계보에서부터 유년기와 장년기의 일화, 사망, 자손에 관한 정보까지 순차적으로 서술하는 묘지명의 정형화된 구성을 따른다. 특징적인 점은

전체 서술이 간결하고 객관적이라는 것이다. 이 작품은 이팽수의 효성과 충절을 담담하고 절제된 문체로 기술하고 있다.

「贈兵曹參判李公旌闈記」는 1784년(정조8)에 이팽수가 병조참판으로 추증되었을 때 그의 6세손 李述賢의 청에 따라 홍양호가 지은 작품이다. 이 글은 “계림은 신라의 옛 도읍이니 예로부터 장대하고 걸출한 선비들이 많다고 일컬어졌다.”³⁹⁾라는 문장으로 시작하여, 경주 부윤으로 재임하던 홍양호가 이팽수의 招魂葬을 보게 되는 장면을 도입부로 삼는다. 홍양호는 이술현에게 직접 들은 내용을 토대로 이팽수의 생애를 「李義士墓誌銘」에 비해 세밀하게 재구성하였다. 예컨대, “갑오년(1594)에 무과에 급제하였다.”⁴⁰⁾라는 단순한 사실 기록이, 임금의 蒙塵을 목도하고 분개하여 붓과 벼루를 내던지고 활과 말을 익히는 장면으로 확장되었다. 이를 통해 ‘학문하는 선비’에서 ‘의를 실천하는 인물’로 변화하는 순간이 생동감 있게 그려지고, 충의의 동기와 실천이 인과적으로 연결된다.

「忠臣李公墓碣銘」은 채제공의 작품으로, 「贈兵曹參判李公旌闈記」와 유사한 구조와 내용을 지니면서도 묘갈명의 문체적 특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의 두드러진 점은 이팽수의 생애를 ‘孝’와 ‘忠’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의 작품들에서도 이팽수의 효성에 관련된 일화는 빠짐없이 등장하지만, 이를 그의 충성스러운 행적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논한 경우는 없었다. 그에 반해 채제공은 이팽수가 전사한 사실을 서술한 뒤, “참말이로구나. 효자의 가문에서 충신을 얻는다고 하더니.”라는 사람들의 찬탄을 덧붙였고,⁴¹⁾ “이팽수는 효

39) 洪良浩, 『耳溪集』 권14, 「贈兵曹參判李公旌闈記」, “記鷄林, 新羅故都也, 古稱多魁梧奇俊之士。”

40) 權相一, 『淸臺集』 권13, 「李義士墓誌銘」, “甲午, 登武科。”

41) 蔡濟恭, 『樊巖集』 권49, 「忠臣李公墓碣銘」, “鄉里稱其孝, 至是咸曰: 信矣哉! 孝子之門得忠臣也。”

성을 옮겨 충성을 다하였다.”는 영남 관찰사의 말을 인용하였다.⁴²⁾

아, 曾子가 말하기를, “전투가 벌어지는 전영에서 용기가 없는 것은 효가 아니다.” 하였다. 용기는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효도는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어서, 두 가지가 서로를 꼭 필요로 하지 않을 듯하다. 그러나 충과 효는 두 가지가 아니니, 효가 아니면 무엇을 미루어서 임금을 섬기고, 충이 아니면 무엇으로써 어버이 섬김을 징험하겠는가. 공과 같은 이는 참으로 증자의 교훈에 부끄럽지 않으니, 존경스러울 때 름이다.⁴³⁾

또한 채제공은 글의 말미에서 증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팽수의 ‘효’와 ‘충’의 연관성에 대한 제언을 덧붙였다. 이는 이팽수의 행적을 비교적 단편적으로 적시하던 앞선 기록들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관점이 이현경의 「이의사전」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현경이 전을 지을 때 채제공의 글을 참조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李義士旌闈記」는 睦萬中(1727~?)의 작품으로, 이술현의 上言을 직접 인용한 부분이 작품 분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는 이술현의 상언으로 이팽수의 행적에 대한 서술을 대체한 뒤, “무릇 사후에 이름을 후세에 남기려는 자들은 실제가 없음을 걱정하지만, 실상이 있는 자가 끝내 묻혀 드러나지 않는 일은 없다.”⁴⁴⁾라는 구절을 덧붙였다. 말미에는 가계를 간략히 정리한 다음 권상일과 채제공의 글을 근거로 삼아 본 기문을 작성했음을 밝혔다. 이처럼 여러 필자가 남긴 기록들은 이팽수의 충절이 남인 문인 네트워크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재해석된 기억

42) 같은 글. “嶺南伯啓言李彭壽移孝爲忠。”

43) 같은 글. “嗚呼! 曾子曰戰陣無勇非孝也。勇輕生也，孝事親也，二者似不可相須爲用。然忠孝無二致，非孝曷以推事君，非忠曷以驗事親。若公者，真不愧曾子之訓，可敬也已。”

44) 睦萬中, 『餘窩集』 권13, 「李義士旌闈記」. “士欲垂名竹帛, 流光來裔者, 患無其實耳, 未有有其實而終湮沒不章者也。”

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이의사전』의 구성은 이팽수를 다룬 다른 작품들과 뚜렷이 구별된다. 이는 문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현경이 입전 과정에서 이팽수의 생애 중 어떤 국면을 선택적으로 부각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이 작품은 사마천의 「백이열전」과 구조적 유사성을 다수 지니고 있어, 이현경이 『사기』를 전범으로 삼아 문학적으로 구현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글이기도 하다. 각 단락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賈子曰：烈士殉名……無所爲而死者，其眞烈士歟？
②	外史氏曰：余讀鷄林義士李彭壽戰亡事蹟……若是而稱曰眞烈士， 其有曰不然者哉？
③	其傳曰：彭壽字眉叟，其先清安人也……由是觀之，彭壽之死，忠義出乎其性，非苟殉其名者，豈不益章章明哉？
④	彭壽自在兒時，能孝於其親……可勝痛哉？
⑤	或曰……難而避之，奚難而不避？
⑥	其後二百餘年，六世孫進士述賢上言籲於朝……其亦賢孝也夫。

[표2] 『이의사전』의 구성

① 賈자가 ‘열사는 명예를 위해 죽는다.[烈士殉名]’라고 하였으니, 선비란 본래 명예를 위해서 죽는 경우가 있는 법이다. 그런데 만약 한갓 자신의 몸이 草野에 거름이 될 뿐⁴⁵⁾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혹 죽

45) 나라를 위해 충성을 바쳐 자신을 희생한다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西漢의 大臣인 谷永이 北地太守가 되었을 때 황제에게 마친 말 가운데에, “이에 천직되어 북지 태수가 되었으니 목숨을 바쳐 제 몸이 풀이 자란 들판을 기름지게 하더라도 성은의 만분의 일을 갚기에도 부족합니다.[仍遷至北地太守, 絶命隕首, 身膏草野, 不足以報塞萬

지 않고 “내가 장차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는 命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이다. 명은 하늘에 달려 있는데, 義가 있는 곳에 또 한 명이 있다. 의리상 죽을 만하면 죽을 뿐이니 名을 어디에 두겠는가. 또, 훗날 목적한 바를 이를 수 있을지 말지 어찌 장담하겠는가. 그러나 본성이 충성스럽고 의로운 자가 아니면 비록 일시적으로 감개하여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을 수 있으나 이름을 남길 수 없는 상황에서는 죽지 못한다. 의도하는 바가 없이 죽는 자가 아마도 참된 烈士일 것이다.⁴⁶⁾

①단락에서는 “열사는 명예를 위해 죽는다.[烈士殉名]”라는 賈誼의 「鵬鳥賦」의 구절로 서두를 연다. 이 구절은 「백이열전」의 후반부에서도 공자의 말을 뒷받침하는 말로 인용된 바 있다. 그러나 이현경은 명제를 뒤집는다. 그는 ‘受命’, ‘性忠義’, ‘無所爲而死’의 세 가지 요소를 들어, 이러한 조건을 갖춘 인물을 ‘참된 열사[眞烈士]’라고 규정한다. 이는 ‘殉名’을 열사의 본질로 보는 통념과 대비되는 것으로, 이현경은 명예를 도모한 죽음이 아니라 의도함이 없는 죽음을 참된 열사의 조건으로 보았다. 가의의 말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인물에 대한 서술에 앞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논지를 연다는 점에서 「백이열전」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면모를 지닌다.

②단락에서는 ‘外史氏曰’로 시작하는 자신의 의론을 삽입하였다. 이현경은 이팽수의 행적을 간략히 제시한 뒤 “此豈非無所爲而死者歟? 非受命者歟? 又非所謂性忠義者歟?”라며, 서두에서 제시한 참된 열사의 세 가지 조건을 이팽수의 실제 행적과 대응시킨다. 「백이열전」 또한 중간에

分.」라고 하였다. 『漢書 谷永傳』

46) 이현경, 『간옹집』 권21, 「李義士傳」. “賈子曰烈士殉名，士固有殉名而死者矣。若徒身膏草野而不爲人所知，則或不死曰吾將以有爲也，此不受命者也。命在於天，而義之所在亦命也。義可死則死耳，名於何有，又何知異日之有爲否邪？然非性忠義者，雖一時感慨，能死於名而不能死於不可名，無所爲而死者，其眞烈士歟。”

‘太史公曰’로 시작하는 사마천의 의론이 삽입되어 있으며, 두 글 모두 ‘열사는 명예를 위해 죽는다.’, ‘백이와 숙제는 원망하지 않았다.’와 같은 기존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된다.

③단락은 “其傳曰”로 시작하여 이팽수의 생애를 사건 중심으로 전개한다. 부친상 때 어린 나이에도 성인처럼 예를 다했던 일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망설임 없이 전장에 나선 결단, 불리한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싸우다 최후를 맞이한 사실 등은 이팽수의 충과 효를 드러내는 주요 일화이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지방에서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끝내 표창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이현경은 “由是觀之，彭壽之死，忠義出乎其性，非苟殉其名者，豈不益章章明哉?”라며, ‘性忠義’, ‘無所爲而死’라는 논지를 재차 강조한다.

한편 「백이열전」은 백이와 숙제의 일생을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말미에 「采薇歌」를 인용한 뒤, “由此觀之，怨邪非邪?”라며 앞서 제기했던 의문을 다시 되짚는다. 이처럼 인물의 일생을 정리한 뒤 ‘由此觀之’로 작자의 평가나 의문을 덧붙이는 방식은 두 작품 모두에서 확인된다.

④단락에서는 이팽수의 충성스러운 성품이 효심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며, “충신을 찾으려면 효자 집안에서 찾으라.”라는 말이 그를 통해 입증되었다고 서술한다. 앞서 살펴본 「忠臣李公墓碣銘」에서 효와 충을 연관시켰던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⑤단락에서는 이현경이 혹자의 의견을 인용하고 이에 반박하는 구조를 취한다.

이팽수는 박진의 휘하가 아니었으니 박진이 그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명령을 받지 않는 것도 가능하였고, 싸울 만하다고 판단되면 싸우고 어렵다고 판단되면 피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그런데

어찌 굳이 죽을 필요가 있었는가?⁴⁷⁾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 이현경은, 이팽수는 명령에 의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위급함을 보고 스스로 달려간 것이며, 이미 죽음을 결심하고 출전한 이상 물러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반박한다.

⑥단락에서는 이팽수의 6대손인 이술현의 상언에 의해 마침내 이팽수가 旌閭의 표창을 받았다는 사실을 서술하며, “이술현은 먼 지방의 가난한 선비였으나 조정을 향해 호소하여 조상의 의로움을 드러냈으니, 그 또한 어질고 효성스러운 자가 아니겠는가.”라는 문장으로 끝을 맺는다. 후손의 효성으로 인해 의로운 이의 이름이 결국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이의사전」에서 이현경은 다른 傳에 비해 한층 더 명확한 논리 구조를 구성하면서 사마천의 「백이 열전」을 의식적으로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忠·孝와 名·義의 개념을 재해석하였다. 이는 동일한 인물을 둘러싸고 권상일·홍양호·채제공·목만중 등이 남긴 여러 기록과의 비교를 통해 볼 때, 이현경이 남인 문인 사회에 축적된 기억의 서사들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작가의 이론을 삼입한 다층적 구조 속에서 이를 재구성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문체상의 변별에 그치지 않고, 이현경이 인물을 입전함에 있어 무엇을 가치의 중심에 두었는지를 분명히 드러낸다. 나아가 이러한 서사적·논리적 전략이 충절의 기억을 재구성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47) 이현경, 같은 글. “或曰：彭壽非晉之部曲，晉非能制死命者也。不受節制可也，見可而戰，知難而避亦可也，何苦必死爲也?”

4. 결론

본고는 무신란 이후 영남 남인이 직면한 정치적·도덕적 위기와, 이에 대응하여 남인 문인 사회가 수행한 충절 기억의 재편 과정을 이현경의 傳 문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무신란은 영남을 ‘反逆鄉’으로 낙인 찍는 담론을 형성하였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영남 남인의 정치적 복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인 문인들은 충·효·열과 같은 윤리적 자산을 지역 정체성의 핵심 가치로 재구성함으로써, 혼들린 도덕적 명분을 회복하고자 하는 집단적 실천을 전개하였다.

이현경은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서 근기 남인과 영남 남인의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매개자였다. 『간옹집』에 수록된 다섯 편의 傳은 다수가 영남 출신의 충절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 작품은 ‘孝’를 ‘忠’의 기반으로 설정하는 일관된 서사적 구성을 보여준다.

「李義士傳」은 이러한 구성 속에서 가장 구조적으로 완성된 형태를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현경은 사마천의 「伯夷列傳」을 전범으로 삼아 입전의 구조를 조직하고, ‘受命’·‘性忠義’·‘無所爲而死’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팽수의 죽음을 재해석하였다. 이는 기존의 묘지명·정려기 등에서 축적된 기억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이를 새로운 논리 체계 속에서 재구성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이팽수에 대한 기록이 홍양호·채제공 등 남인 문인 네트워크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온 집단적 기억의 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현경의 전 문학을 다른 남인 문인의 기록과 비교하거나, 정조대의 정치적 기조와 연계하여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영남 남인의 충절 기억이 후대 학자들에 의해 어떻게 이어졌는

지, 지역 사회에서 어떠한 문화적 기제로 자리 잡았는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이현경의 문학 활동을 조선 후기 남인 지식인의 집단적 실천 속에서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 權相一, 『清臺集』, 『한국문집총간 속』 61, 한국고전번역원.
- 睦萬中, 『餘窩集』, 『한국문집총간 속』 90, 한국고전번역원.
- 李獻慶, 『艮翁集』, 『한국문집총간』 234, 한국고전번역원.
- 安鼎福, 『順菴集』, 『한국문집총간』 229~230, 한국고전번역원.
- 蔡濟恭, 『樊巖集』, 『한국문집총간』 235~236, 한국고전번역원.
- 洪良浩, 『耳溪集』, 『한국문집총간』 241~242, 한국고전번역원.
- 『史記』
- 『漢書』
- 『承政院日記』
- 강복숙(1996), 「戊申亂 後 老·少論의 政治的 動向과 對 嶺南政策」,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백철(2021), 「18세기 영남 ‘반역향(叛逆鄉)’답론의 실상과 허상」, 『영남학』 76,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김보민(2025), 「月谷 吳瑗의 散文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우(2012), 「정조 대 영남 남인의 중앙 정계 진출과 좌절」, 『다산학』 21, 다산학술문화재단.
- 김승룡(2001), 「滄江 金澤榮의 傳 연구 - 立傳意識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18, 민족문화학사연구소.
- 김정자(2023), 「英·正祖 연간 樊巖 蔡濟恭의 생애와 정치 활동」, 『민족문화』 64, 한국고전번역원.
- 김주부(2012), 「李承延의 생애와 〈嶺對〉에 나타난 영남인식」, 『대동한문학』 37, 대동한문학회.
- 김진홍(2007), 「艮翁 李獻慶의 生涯와 詩世界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효정(2020), 「17세기 전반 北人系 南人 시문학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용국(2021), 「1728년 무신란의 지역적 전개와 이술원 현창사업」, 『남명학연구』 71, 경남문화연구원.
- 손혜리(2015), 「成海應의 『草榭談獻』 研究」, 『대동한문학』 43, 대동한문학회.

- 송근후(2020), 「艮翁 李獻慶의 문학관과 산문 세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운필(2013), 「이현경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 17, 한국한시학회.
- 이근호(2010), 「英祖代 戊申亂 이후 慶尙監司의 收拾策」, 『영남학』 1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이재현(2014), 「18세기 이현일 문인의 伸冤운동과 追崇사업」, 『대구사학』 117, 대구사학회.
- 이향배(2002), 「간옹 이현경의 고문론 연구」, 『한문교육연구』 19, 한국한문교육학회.
- 조성산(2021), 「18세기 艮翁 李獻慶의 理勢論과 心性論」, 『동방학지』 19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조지형(2017), 「18세기 西學 비판의 맥락과 艮翁 李獻慶의 〈天學問答〉」, 『교회사 연구』 5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최준하(1993), 「변암 채제공의 전 문학연구」, 『어문연구』 24, 어문연구학회.

Abstract

A Study of Yi Heon-gyeong's Biographical Writing: Reconfiguring Loyalist Memory after the Musin Rebellion and the Southern Faction's Consciousness of Writing Lives

Kim, Bo min *

This article examines the political and moral crisis faced by the Yeongnam Namin faction after the Musin Rebellion of 1728 and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Namin literary community sought to reorganize the memory of loyalty in response, focusing on the *jeon* (biographical writings) of Yi Heon-gyeong (1719–1791). The Musin Rebellion intensified discourses that stigmatized Yeongnam as a “rebellious region,” resulting not only in the political marginalization of the Yeongnam Namin but also in serious damage to the region’s moral reputation and Confucian orthodoxy. Under these circumstances, Namin literati developed a form of writing that aimed to restore regional moral legitimacy and reconstruct collective memory through the recording and commemoration of loyal figures.

This study first reviews the political and moral crisis confronting the Yeongnam Namin after the rebellion, along with King Jeongjo’s restoration policies, and analyzes the literary networks devoted to the commemoration of loyalty that emerged through exchanges between the Geungi and Yeongnam Namin. It then surveys the group of *jeon* works included in the *Ganong jip*, demonstrating that Yi Heon-gyeong’s biographies consistently focus on loyal figures from the Yeongnam region and adopt a coherent narrative structure in which filial piety (*hyo*) is positioned as the ethical foundation of loyalty

* Korea University, PhD Student / E-mail: equuleus121@korea.ac.kr

(chung).

Finally, focusing on “Yi Uisa jeon” as a central case study, this article analyzes how Yi Heon-gyeong models his biographical structure on Sima Qian’s “Biography of Bo Yi” and reinterprets the subject’s death within that framework. Through comparison with contemporary accounts of the same figure, it reveals that Yi Uisa jeon selectively appropriates earlier loyalty narratives while reconstructing them within a multilayered structure that incorporates the author’s own moral argument.

Through this analysis, the article argues that Yi Heon-gyeong’s jeon literature represents one form of collective memory practice through which the Namin literary community, in the aftermath of the Musin Rebellion, sought to reestablish regional moral orthodoxy and political legitimacy by means of loyalty narratives.

Key Words

Yi Heon-gyeong, biographical literature, Yeongnam Namin, the Musin Rebellion (1728), and loyalism

논문접수일: 2025.12.08. 심사완료일: 2025.12.16. 게재확정일: 2025.12.30.

